



KOFA ... 코로나19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헤쳐나가

Tel. 021-30029090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MONTHLY KOFA

코파의

정일

Vol. **70**
2020/07

인도네시아 뎅기출혈열도 계속 확산... 코로나에 '이중고'

뎅기출혈열 6만4천명 · 코로나19 4만5천명...초기증상 유사



는데, 왜 아직도 환자가 늘어나는지 파악 중" 이라고 덧붙였다.

질병 전문가들은 올해 우기가 5월 말, 6월 초까지 길어지면서 모기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습지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올해 뎅기열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 를 겪고 있다.

뎅기열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두통, 오한 등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뎅기열은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천226명이 증가해 누적 4만5천29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2천429명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옛새 연속으로 1천명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뎅기출혈열(DHF)이 동시에 확산하며 비상이 걸렸다.

21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뎅기출혈열 환자는 6만4천251명이며 사망자는 385명이다.

뎅기열은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대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는다.

감염자의 70~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는 뎅기출혈열, 출혈에 혈압까지 떨어지는 뎅기쇼크증후군이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무증상자 등을 감안할때 전체 뎅기열 환자 수는 집계된 수치(뎅기출혈열) 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6만4천여명의 뎅기출혈열 환자 가운데 발리섬에서 8천930명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서부자바가 6천337명, 누사틍가라가 5천

4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3천628명이 감염됐다.

보건 당국 책임자는 "누적 환자 수로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훨씬 줄었지만, 올해는 뎅기열 발생 절정기인 3~4월이 지났음에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이어 "통상 6월에는 뎅기출혈열 환자 수가 확 줄어야 하

투자조정청 "중국에서 인니로 공장 이전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 많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여러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BKPM의 바흐릴 청장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전자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사명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추정 투자액은 16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언급했다. 바흐릴 청장은 이어 "이외에



도 여러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가구와 전기제품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며 "모두 중부자바주 바땅 공단 또는 브레베스 공단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관심있어 한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판단해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기존 투자 계획부터 빠르게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투자 계획의 규모는 총 708조 루피아에 달한다. 바흐릴 청장은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인허가가 늦어지는 점, 토지 취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설명했다.

KOFA ... 코로나19에 능동적인 대응해 나가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회장: 이종윤)는 지난해 말 중국 우한발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 최악의 상황속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이하: KOFA)는 코로나19의 인도네시아 상륙직후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을 위해 전회원사에 마스크를 지원하였고 각 회원사별 빠른 정보공유로 현지직원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인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한국-인니 양국간 차량용 우정의 스티커를 배부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각 회원사별로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인도네시아 사회적 거리두기(PSBB)로 인한 어

려운 기업경영 환경속에서도 KOFA는 한 곳도 도산되거나 폐업된 회원사없이 힘든 상황속에서도 슬기롭게 버티고 견디고 있다.

특히 KOFA회원사중 많은 회원들은 KOFA와 인도네시아 한인커뮤니티와 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리더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면서 코로나 19사태의 전방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은 약 50% 이상의 물량이 감소된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8월을 전환점으로 다소 상승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회복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놓고있다.

KOFA는 창립12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코로나19로 인해 회장단회의등 공식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더 결속력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사태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사상초유의 난국이지만 KOFA는 상호 상생과 협력으로 이겨 나갈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KOFA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의회, 옴니버스 법안의 언론보도 개정안 삭제 요청



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 위원회(BALEG)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중 언론보도법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언론보도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여러 언론 미디어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 법률 1999년 제40호 제18조의 개정안으로 언론사의 정보 탐색, 취득, 유포를 방해하는 자, 종교적 규범과 도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나 신용이 손상된 자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언론에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담당자 및 직원들과 회사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9일에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저널리스트 협회의 야디 회장은 “우리 보도심의위원회는 자율 규제 조직이 있다. 정부의 정보 통제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스뎀당의 파우픽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언론보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옴니버스 법안에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언론보도 개정안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아구스 무역장관, RCEP 장관회의 참석... “RCEP 체결 통한 경제회복 희망”



▲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빠르만도 무역장관

인도네시아 포함 15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국가들은 23일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연내 RCEP에 서명을 달성하자는데 동의했다. 아구스 무역장관은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제10차 회기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장관회의로 당시 협상을 추진하던 16개국 중 인도도를 제외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올해 잔여 협상을 거쳐 최종 서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무역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RCEP 서명 및 발효될 경우 통일된 규범의 국제무역시스템 수립을 통한 국가간 공급망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발언했다. 아구스 무역장관은 이어 “글로벌 발전, 번영, 공급망에서 각국은 독자적 전략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인도가 RCEP에 다시 합류하길 바란다면 언제든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도 일부는 기종을 교체해야 된다. 국영 최대 은행 만다리(Bank Mandiri) 역시 대규모사회적 제약(PSBB)으로 QRIS 촉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QRIS 도입 점포 수는 10만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비현금 거래 자체는 권장되고 있어 향후 QR코드 이용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EC)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DANA(다나)’ 이용객이 올해 4월 4,000만명에 달해 작년 말 시점에 비해 1,000만명 늘었다. BCA의 산토소 이사도 “(IC칩이 있는) 카드 결제에 비하면 아직 수요가 작지만 확실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5월 시점의 동행의 QRIS 결제 금액은 470억 루피아였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우려로 2019년 11월 부로 협상을 중단했다. 인도 기업들은 RCEP로 인해 중국의 저렴한 제품과 호주의 유제품이 자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도와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도 양자 무역 거래량은 2005년~2006년의 43억 달러에서 2018년~2019년에 2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은 54억 2천만 달러였다. 또한 인도는 인도네시아 석탄과 원유, 팜유 수출국 중 두번째로 크다. 중국과의 올해 1~5개월 무역 거래량은 2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인도네시아 최대 무역국가를 유지했다.

인니 국가표준QR코드 보급 차질... 코로나19로 대면거래 감소가 원인

올해 1월 인도네시아에 본격 도입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국내 통일 규격인 ‘QR코드 인도네시아 표준(QRIS)’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업시설의 영업 제한으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QRIS 이용 점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QRIS가 도입된 점포 수는 4월 기준 약 327만 점포이다. 3월부터 한 달간 약 60만 점포가 늘었지만 중앙은행이 올해 초에 설정한 목표 점포 수 1,500만점에는 한참 못 미쳤



다. 22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민간 최대 은행 센트럴 아시아 은행(BCA)의 산토소 이사는 “QRI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QR코드를 표시하는 단말기(EDC)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선 사용 점포와 점포가 입

주하는 상업시설의 운영회사가 협력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점포들이 제한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BCA의 QR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가맹점 중 QRIS를 도입하고 있는 점포는 현재 17만 2,000점이다. EDC는 48만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1년(辛丑年)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2021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pt.kwanggaeto@gmail.com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2021년 1월 중 말소처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 중 일괄 말소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했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인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2020.12.31. 기준으로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2(귀국신고)에 따르면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3(등록말소)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제9조의 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아디다스-올버즈, 최저 탄소 발자국 가진 풋웨어 개발 중



스포츠 대기업 아디다스와 뉴질랜드의 소비자 직접 거래 풋웨어 회사 올버즈가 “탄소 발자국이 최저”인 스포츠 기능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제조 및 공급망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생 가능 소재를 연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다. 아디다스와 올버즈는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풋웨어 개발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버즈는 “당사의 인재와 자

원을 활용해 탄소 발자국 배출이 최저인 기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탄소 배출량이 0인 상품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풋웨어의 탄소 발자국은 올버즈의 제품 수명 평가 도구 및 아디다스의 탄소 배출 측정용 탄소 발자국 도구를 사용해 분석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 부여가 돼 보다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올버즈의 팀 브라운 공동 CEO는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페르소나(Persona)



조기조

J.C. 페니가 파산신청을 했다. 그럴 때가 온 것이다. J.C. 페니는 텍사스 주의 근교 북부인 플레이노에 본사를 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다. 이 회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 주를 제외한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865개의 백화점을 운영하여 왔다. 70년대에는 ‘고객이 무얼 원하는지 다 알고 제공한다(We Know What You’re Looking For)’고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고객의 ‘나날이 다 소중한 줄을 안다(Every Day Matters)’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왔지만 목표고객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사정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외식을 줄이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 가서 해 먹는다. 가족이 배불리 먹으면 서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을 줄이는데 입는 것이야 사치 아닌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꿈쩍도 못하게 된 가운데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최고급 백화점 니만마커스, 저가 백화점 스테이지 스토어스 등이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백화점체인 로드앤테일러도 도산개진이다. 그간에 126년의 전통을 가진 백화점 체인 ‘시어스’가 파산했고 162년 역사를 가진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향후 3년간 점포 125곳을 폐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즐겨 입었던 제이크루(J. CREW)에 아내도 만족했다. 날리지 않는 디자인, 고급브랜드에 쓰는 원단과 소재에 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이엔드 럭셔리에 틀림이 없었다. 영원히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자라(Zara)와 H&M, 유니클로 등이 나타나자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에 이달 초,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자라는 팔릴 제품을 적당량만 만들어서 재고를 남기지 않았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2주면 만들어 내는 자라는 매주 두 번씩이나 신상품을 출시한다. 그것도 미친 가격에..... 그래도 아내는 세일할 때 제이크루를 찾지만 딸들은 자라를 찾는다. 딸과 함께 나가면 언니로 보는 엄마들도 자라의 충성고객이다.

1902년에 시작했으니 118년 역사의 최대 백화점체인 ‘J.C. 페니’ 역시 큰 덩치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해도 850개 점포가 문을 닫으며 매출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직원 8만5000여 명을 해고해야 했다. 가보면 살 것이 없다. 무언가 허전하다.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또 세계적인 흐름이다. 코로나-19로 나는 홈 쇼핑을 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손 소독, 거리 유지 등으로 불편한 쇼핑을 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몇 번 누르면 끝이다. 신속한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간다. 언택트의 정수다. 손쉬운 주문과 결제에 시간마저 들지 않으니 어찌 백화점이 살아남겠는가? 어디 백화점이나 의류산업 뿐이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세대가 바뀐다. 60대가 주류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구매력이 있을지라도 소비에 인색하다.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고 자녀나 손주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르다.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이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고 저성장에도 취업절벽에 부딪힌 세대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면 되고,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하는 이들은 먹고 입는 것을 간단하고 간

편하게 한다. 실속을 차린다는 것이다. 입어보니 좋고 먹기에 편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다이아 반지나 명품 가방을 찾지는 않는다. 원룸이라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산다. 남들이 보고 즐겼다는 여행지를 더듬어 자유여행으로 즐기고 온다. 아끼고 살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아끼지 않는다. 분신 같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뚝 소리 난다.

마케팅에서 4P는 오래도록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 판촉과 유통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소비주체인 사람(People)을 중시하고 있다. 정확히는 개인화된 사람들의 모습(Persona)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목소리, 제 멋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원하는 그 ‘제 멋’에 맞추어야 살아남을 것이다. 디지털의 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속이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모를까.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E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500억원 묶인 한국인들, 靑국민청원 제기

지와스라야·하나은행 사건 1년8개월째 … “정부 대 정부 해결해야”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1년 8개월째 약 500억원이 묶인 한국인 470여명이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에 한국인의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와스라야에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으로, 나머지 피해자들도 속속 청원에 동의했다.

지와스라야는 부실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8년 10월 6일부터 보험금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피해자 가운데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에서 지와스라야 고이율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한국인이 474명이고, 피해 금액은 5천720억 루피아(49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정기예금 상품을 물었는데 하나은행 현지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지

와스라야 상품을 권유했다”, “원금손실 우려를 알리지 않았다”, “하나은행 공동판매 상품인 줄 알았다”는 등 불완전 판매 문제를 제기했고, 하나은행 측도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증권을 인수해 원금을 먼저 내주길

원한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 금융당국도 “해외 현지법인 관련 사안”이라며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올해 2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나서 소액 피해자들부터 구제해줄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를 믿고 기다렸으나,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정부 예산이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

현지 금융당국 조치를 보고, 집단 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하려던 한국인 피해자들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날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하나은행은 끝까지

지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고, (지와스라야 상품 판매) 당시 인도네시아 법인 A행장을 퇴사시킴으로써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한국기업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가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 해당 기업이 체불 임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중요하고, 자국민 재산은 중요하지 않은 거냐”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한국 정부가 조코위(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부에 해당 문제를 직접 언급 및 해결해 하루빨리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청원 글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으며, 청원이 올라온 지 두 시간 만에 420명이 넘게 동의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도서관/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플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관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TOILON PT. TOILON INSU PANEL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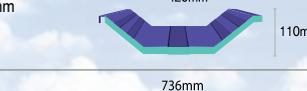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로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도전... 첫 여성 총장 나올까

한국인으로 세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앞서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과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고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에 한국인 출신 수장이 나왔으나, WTO 사무총장은 배출하지 못했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레이스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유 본부장이 후보 등록을 하면 현재까지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차기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



▲ 발언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코엑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RCEP 제10차 회기 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3

며, 미·중 갈등 속에 흔들리는 WTO 위상을 다잡고,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164개 회원국들에 어떤 비전과 목표, 역할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역량과 정보를 집중해야 하는 치열한 외교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유 본부장은

1995년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로,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다.

2018년 1월 통상교섭실장으로 임명돼 1948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가 설립된 이래 산업부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별’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자, 산업부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유 본부장은 최근 각종 통상 관련 회의에서 ▲ 경제 민족주의의 본격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꼽은 뒤 “악화된 WTO 규범 제정 능력을 복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역대 사무총장은 ▲ 1대 1993~95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 2대 1995~99 레나토 루지어로(이탈리아) ▲ 3대 1999~2002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 4대 2002~05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 5~6대 2005~13 파스칼 라미(프랑스) ▲ 7~8대 2013~현재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등이다.

[연합뉴스]

국가개발계획청, 코로나19 여파 실업률 8.1~9.2% 예측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바빠나스)은 22일 올해 실업률이 8.1~9.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난해 5.28%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빠나스의 수하르소 장관은 의회 재무위원회에서 “올해 400만~55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말하며 “실업률은 내년에도 7.7~9.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수하르소 장관

수하르소 장관은 “3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약 10주 동안 국내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30% 감소했다”라며 “실직자와 수입 감소로 해당 기간 동안 감소한 구매력은 362조 루피아 규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명그랑 리브 카라와치 루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수필가 하연수, 첫 에세이집 〈그 벽에서 멈추다〉 출간

문학은 언어를 통해 구축된 삶의 실상이다.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강한 의식의 주체들이 있는 힘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자신을 몰입시켜 그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연수 작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외에서 살면서 겪는 경험들을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 틈나는 대로 정리를 했고, 그런 글들을 다듬어 등단을 하고, 지금껏 써 놓은 글들을 수필화해서 드디어 2020년 5월 30일 도서출판 에세이문예사에서 <그 벽에서 멈추다>란 제목의 첫 에세이집을 발간하였다.

몰입해서 하는 일이란 가치 있는 것이다. 시인 보들레르는 인간은 어느 하나에 미쳐야 한다고 했다. 그의 수필 안에는 압축된 삶의 진한 영혼이 서려 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하연수 작가는 수필의 매력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작가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문학론을 갖고, 그 순수와 향기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짧은 기간 속에서도 수필집을 완성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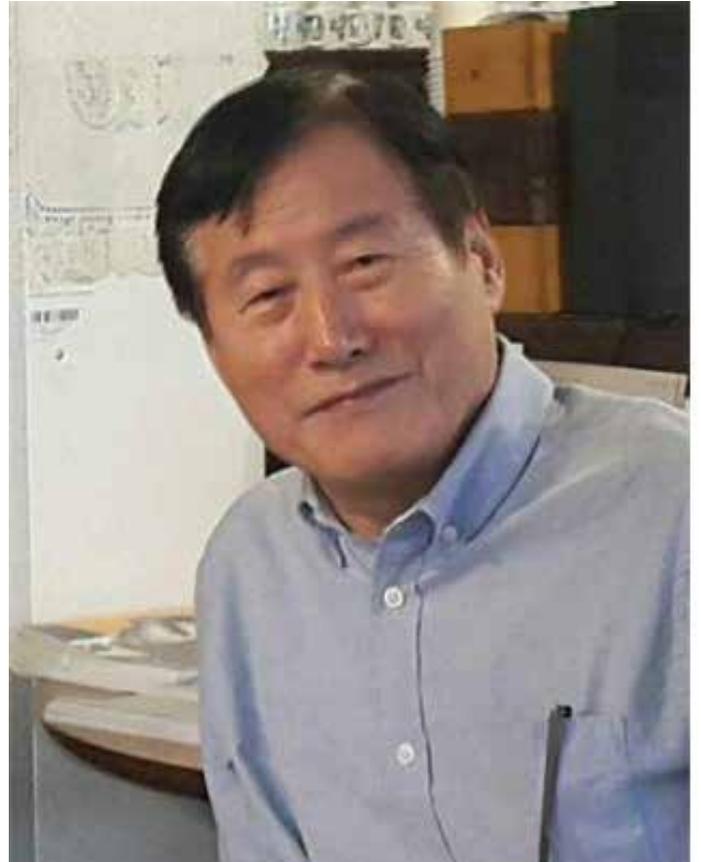
무엇인가에 열렬히 집착하거나 몰입하는 것은 동지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연수 작가에게 그 대상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소박하게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고, 유심히 관찰하는 일이었다. 작가가 작품집을 ‘수필집’이라 하지 않고 ‘에세이집’이라고 고집한 것은 글의 지성성과 본격성을 염두에 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의 서평을 쓴 권대근 평론가는 “인생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반성적 성찰을 통해 위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전환해왔다고 괴력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튼튼한 삶을 더 튼튼히 다지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간화의 길이라 할 수

있겠다. 하연수가 수필가로 등단하고 처음으로 내어놓는 ‘에세이집’은 수필에 대한 나름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제재를 통해 주제를 내면화하고, 문장을 형상화로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수필에서는 문학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연수의 수필은 형상적 체험을 통해 문학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 수필의 부정적인 인식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은 추천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산업에 온 정열을 불태웠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물론 불교문화 등 다양한 예술의 영역까지 수필의 소재로 다루며 수필을 인문학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에 찬탄을 표합니다. 문학적 울림을 주는 좋은 수필들이 많은 이 책이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는 물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배포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책에 추천사를 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서미숙 회장은 ‘감동이 있는 격조의 글’이란 제목으로 “늦게 시작한 그의 글쓰기는 부산 신발산업의 주역으로 인도네시아로 와서 생업으로 바꿨던 젊은 시절의 고뇌가 글 모퉁이에서 새록새록 아쉬움으로 묻어난다. 미처 쓰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체험적 이야기들은 보물창고를 열어보듯 귀하고 정



▲ ‘그 벽에서 멈추다’ 저자 하연수

감있는 따뜻한 인간애가 스며져 나온다. 인도네시아 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해 불교와 힌두교를 아우르는 다양한 박식함은 하연수 작가만의 고귀한 자산이다.”라고 했다.

공공규 시인은 하연수 에세이집의 표사를 통해 “몇 해 전 적도의 햇볕 아래서 수필가 하연수 선생님의 청산유수 같은 이야기에 빠져 황홀을 맛본 적이 있다. 적도의 불가사의하고 위대한 걸작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석벽 앞이었다. 신의 손을 가진 조각가들이 대를 이어 쌓았다는 석벽과 조각패널들. 거기에 수놓은 무궁무진한 신화와 역사와 힌두와 불교와 경전 이야기들. 그걸 말이 아닌 글로 다시 만나니 하연수 선생님의 열정적 모습이 석벽에 조각된 다양한 형태의 인물과 짐승과

수목과 화초들, 그리고 온갖 추상적 문양들과 함께 새록새록 살아나는 듯하다. 유적에 대한 말문이 터지면 이야기가 샘물처럼 펄펄 솟아오르는 이면에는 사업을 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적도의 유적을 찾아 후끈후끈한 햇살 아래를 미친 사람처럼 떠돌던 적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하연수 선생님은 적도의 장엄하고 불가사의한 유적과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돌조각 속에는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있고, 바람 같은 숨결이 있고, 천년의 돌 향기들이 돌 틈 사이로 흐르고 있다.”는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후세에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협 인니지부 제공)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감사를 받고 있는 하연수 수필가가 2020년 5월 30일 첫 수필집 〈그 벽에서 멈추다〉를 발간했다. (사진= 에세이문예사 제공)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 | | |
|--------|---------------|--------------|
| 주중 | IDR 575.000 | Include Cart |
| 토요일 오후 | IDR 1.700.000 | Include Cart |
| | IDR 1.460.000 | Walking |
| 일요일 오후 | IDR 1.500.000 | Include Cart |
| | IDR 1.260.000 | Walking |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BINTANG BEER PROMO*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 golf.co.id www.modern 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 golf_countryclub



신으면 저절로 거리두기 되는 루마니아 구두 명장의 신발

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자 전문 경력을 이용해 길이가 75cm에 달하는 구두를 만들었다.

“약 1.5m 거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 신발 생산에서 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의 구두를 주문받아 제작하면서 2008년 글

이 취소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구두는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주문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수영할 때 신는 핀(오리발)이나 오리너구리의 부리를 닮은 이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 데는 이틀이 걸리고, 한 켤레 가격은 약 100유로(약 14만원)다.

한국일보

루마니아 부다페스트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클루지나포카에서 루마니아 구두장인 그리고레 렵(55)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발명한 구두가 눈길을 끌고 있다.



39년간 최고의 천연 가죽 구두를 만들어온 구두장인은 코



구두제작자는 “이 신발을 신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



로벌 금융위기도 잘 버텨온 렵은 최근 코로나19로 공연

수입 의존 ‘신발 접착제’ ... 부산서 국산화 나선다

2010년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지역기업과 합작... 수출시장 노려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제1호 연구소기업이 신발 접착제 국산화에 나선다.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동성접착제는 지난 23일 공동합작회사 ‘(주)아망뜨티에스에이’ 설립 현판식을 사상구 모라동의 생산시설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망뜨티에스에이는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해 만든 첫 연구소기업이다. 연구원은 2010년 특허를 받은 ‘포화 신발(캔버스화)용 수성 프라이머(접착제) 조성물’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최근 유행하는 스니커즈 종류인 캔버스화는 접착제로 신발 갑피(겔자죽)와 아웃솔(밑창)을 붙여 증기에 찌서 완성한다. 기존 신발용 접착제는 다국적 기업 헨켈과 대만업체들이 주로 생산해 지금까지 국산 제품이 없었다.

하지만 외국산 제품은 신발 종류별로 다른 접착제를 써야 하고 접착력도 낮아 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았다. 연구원이 개발한 수성 접착제는 하나의 접착제로 다양한 신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NR라텍스 소재에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만들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솔벤트(용매)가 아닌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부분의 접착제가 톨루엔·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을 포함해 작업자의 건강 문제가 제기됐다. 합작회사 설립은 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손을 맞잡으면서 가능했다. 동성접착제는 지난해 글로벌 신발 브랜드 반스(Vans)의 베트남 생산업체로부터 수성 접착제 공급을 요청받았지만 기술이 없어 실패했다.

이에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접착제를 생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해당 기술의 특허기술 가치 평가를 받고 이사회 승인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았다. 합작사는 동성접착제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추가한 제품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접착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올해 하반기 베트남 시장을 1차로 공략한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로 마케팅 영역을 넓힐 계획도 세웠다. 국내 신발 기업들도 국산 접착제를 수급해 품질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연구원 고분자표면연구실 천제환 실장은 “코로나19로 직접 해외 영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자체 생산한 브랜드 샘플은 이미 현지로 보내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 착화 테스트를 거쳐 정식 생산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복 x 브레인 데드, 컬래버 통해 ‘클래식 레더’ 재현



▲ 브레인 데드 x 리복 클래식 레더 컬래버레이션

리복이 크리에이티브 집단인 브레인 데드(Brain Dead)와 컬래버레이션한 결과물이 출시됐다. 브레인 데드는 1983년 출시돼 수십 년 동안 리복의 인기 상품 중 하나가 된 빈티지 풋웨어, 클래식 레더(Classic Leather)를 재현했다. 이번에 출시될 풋웨어의 어퍼는 다크 브라운 메쉬 어퍼와 스웨이드를 결합해 기존의 가죽 구조를 대체했다. 그리고

오렌지 컬러의 스트라이프를 더했으며 스웨이드 소재의 레이스와 양 측면에 리복과 브레인 데드의 브랜드를 새겼으며 텡 태그에도 장식했다. 한편, 브레인 데드는 지난 해 컨버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클래식 풋웨어 척 70을 재현했으며 2017년에는 반스와 컬래버를 통해 올드 스퀘어 LX, 이어러 LX, 클래식 슬립 온 LX를 구현한 바 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 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도서관/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코로나 19로 인해 바뀌게 된 소비 행태... 풋웨어 오프라인 구매율 줄어



미국 전역에서 리테일 매장이 재개되자 소비자 대다수(54%)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풋웨어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소비자(32%)가 줄었다.

“많은 구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고객 주도 디지털 제품 테스트 솔루션 제공업체 퍼스트 인사이트(First Insight)의 그렉 페트로 CEO는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접촉 중심이었던 업계가 접촉을 멀리하게 됐다. 리테일 매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구매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찾게 됐으며 편안한 공간을 갖춘 매장을 찾게 됐다.”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매장이 재개되면서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찾은 오프라인 매장은 의류(54%)였고 그 다음은 가전(36%), 풋웨어(32%) 순이었다.

여성 소비자 중 65%는 옷 구입 전에 입어보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66%는 판매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남성 소비자의 54%는 옷 구입 전에 착용을 원치 않았고 64%는 미용 제품을 구입할 때 테스트를 하지 않았

으며 54%는 판매 직원의 도움을 원치 않게 됐다.

밀레니얼 세대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쇼핑 환경이 거의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 71%가 의류 구입 전에 옷을 착용해 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49%에 불과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 중 86%가 미용 제품 구입 전에 테스트 하는 것을 꺼렸지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58%만이 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안전함을 느끼는 매장

응답자들은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한정된 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공간에서 가장 큰 안전감을 느꼈다. 오프라인 매장 쇼핑 경험의 안전성을 고려하자면, 소비자들은 체온 확인과 자가 보고는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WorldFootwear

삼성물산, 나이키 벽 못넘어... 스포츠 브랜드 포기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스포츠 브랜드인 ‘빈폴스포츠’를 정리한다. 또 빈폴액세서리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한다. 지난 1·4 분기에 영업손실 310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되자 부진한 브랜드를 철수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브랜드 효율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12일 빈폴스포츠를 접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전국 100여개 매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아웃도어 시장 침체로 2018년 빈폴 아웃도어를 빈폴스포츠로 바꾸고 걸그룹 트와이스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스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빈폴은 1989년 선보인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빈폴맨, 빈플레이디스, 빈폴액세서리, 빈폴골프, 빈폴스포츠, 빈폴키즈 등으로 전개 중이다. 빈폴스포츠의 연간 매출은 1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부문 강화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빈폴액세서리를 온라인에서만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017년 아동복인 빈폴키즈를 온라인 브랜드로 전환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남성복 엠비오도 온라인에서만 전개해 오고 있



다. 빈폴 레이디스에서도 온라인 전용 라인을 선보이며 온라인 시장 강화를 통한 2030 세대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7월부터 주4일제 근무에 들어간다.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다. 임원들은 다음달부터 급여를 10~15% 자진 반납키로 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한 달 간 무급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부산서 해외 나간 기업들 “복귀 의사 없다” 부산상의, ‘리쇼어링’ 현황 조사

복귀 희망 기업 한 곳도 없어
“국내 인건비 여전히 높은 데다
복귀해도 관련 혜택 크지 않다”

부산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 가운데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의사를 밝힌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의는 부산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부산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리쇼어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에 생산법인을 둔 부산 기업이다.

부산상의는 조사 대상을 부산과 울산, 경남 300여 기업으로 확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없는 이유는 국내 인건비가 여전히 높은 데다 국내에 복귀를 하더라도 관련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상의 한 관계자는 “해외

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인력과 금융, 투자 여건 등이 좋은 수도권이 유리하다”면서 “부산에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 무상 제공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부산에는 8개 기업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신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복귀의 차원이 아닌 사업 부진에 따른 철수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e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프로스펙스, 30년 전 로고 다시 내걸고 재도약 시동

뉴트로 열풍에 출시한 오리지널 라인에서 새 기회 포착...

“다시 국민 브랜드로”

“과거 디자인을 재해석한 ‘오리지널 라인’ 운동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 프로스펙스가 뉴트로 열풍에 주목해 2017년 론칭한 ‘오리지널 라인’ 과거 브랜드 상징이었던 ‘F’ 로고를 내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다시 F 로고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LS네트웍스의 토종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는 올해부터 1981년 론칭 당시 사용했던 ‘F’ 모양 오리지널 로고를 다시 제품 전면에 내걸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프로스펙스는 2017년 당시 거세게 불었던 뉴트로 열풍에 발맞춰 F 모양 로고를 강조한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라인’을 재출시한 바 있다. 이때 선보인 제품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끈 것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됐다.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뉴트로 감성을 일으키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내부에서도 프로스펙스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 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내친 김에 프로스펙스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옛 로고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한동안 잠잠했던 마케팅 활동도 다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TV 광고가 눈길을 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프로스펙스를 신고 복싱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광선 선수를 모델로 등장시킨 것이다. 다시 한 번 예전의 인기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광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때는 나이키도 압도했던 ‘최강자’

프로스펙스의 인기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한때 선풍적이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익숙해진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에게는 다소 의외일지 몰라도 1980년대 국내 운동화 시장에서 프로스펙스에 견줄 만한

적수가 없었다. ‘국민 운동화’로 불린 시절이었다. 프로스펙스는 국제상사가



1970년대 말 외국산 운동화가 국내에 본격 유입되면서 만든 브랜드다. 1981년 출시 당시부터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신발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품질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국내 신발 브랜드로는 최초로 전문 연구기관인 스포츠제품 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연구센터는 현재까지 운영되며 ‘한국인의 발에 맞는 신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성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찾아왔다.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프로스펙스를 운영하던 국제상사 역시 프로스펙스의 인기로 힘입어 1990년대 초 연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때는 나이키도 프로스펙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1994년 나이키의 매출액은 프로스펙스의 절반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프로스펙스의 독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거센 해외 브랜드의 공세에 밀려 서서히 힘을 잃어 간 것이다. 프로스펙스는 연평균 20% 정

도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 간 반면 나이키와 리복 등은 매년 40%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프로스펙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프로스펙스가 1997년 TV 광고에 내보낸 ‘정복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우리를 지킵시다’와 같은 메시지는 이때 느꼈던 위기감을 반영해 던진 것이다. 그래도 계속 운동화 시장 1위를 고수하며 자존심을 지켜 나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인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1998년 터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치명타였다. 프로스펙스를 운영하던 국제상사는 결국 부도가 나며 법정 관리에 들어갔

었다. 2009년 치밀한 사전 조사 끝에 성인 남녀가 ‘겉기’를 즐긴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여기에 맞는 워킹 토탈 브랜드 ‘W’를 출시했다. 모처럼 신제품 라인이 인기를 끌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를 앞세워 2013년 출시한 ‘연아라인’도 누적 100만 쪼이 판매되는 등 호응을 얻었지만 실적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었다. 프로스펙스를 주력으로 하는 LS네트웍스의 브랜드 사업은 결국 2015년부터 적자 전환된 상태다.

위기 속에서 2016년 말 취임한 문성준 대표는 과감한 결

단을 내린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프로스펙스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당시 젊은층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해 이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F 로고를 박은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라인’은 그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된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오리지널 라인의 대표 상품인 어글리슈즈 ‘스택스’



에 그간 프로스펙스를 외면하던 밀레니얼 세대가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스택스는 발매 이후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 쇼핑몰인 ‘무신사 스토어’에서 스니커즈 카테고리 판매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중·장년층 위주였던 고객이 10~20대까지 넓어지는 효과를 거두면서 프로스펙스는 새 기회를 포착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모든 제품을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들면서 과거의 로고를 다시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젊은층에게는 패션성이 강조된 브랜드 이미지로 화제를, 중·장년층에게는 반가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펙스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귀환하겠다는 새 비전을 세웠다.

1020세대를 타깃으로 한 ‘뉴트로 트렌드 상품 라인’과 기존 워킹화 라인을 대표하는 ‘테크니컬 상품군’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발매하며 판매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올해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브랜드 사업의 매출은 265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381억원) 대비 크게 줄었고 영업손실은 더욱 확대됐다.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악화됐지만 5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며 올해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의 중앙부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의 상단부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의 아웃솔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의 뒤꿈치

인기 폭발 에어조던 6 “헤어”, 재출시 결정

조던 브랜드가 벅스 버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신상품 에어조던 6 “헤어(Hare)”가 출시돼 단시간 내에 품절됐다. 하지만, 이 제품을 놓친 스니커즈 팬들을 위해 재판매가 결정됐다. 현재 “헤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조던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1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 사이즈 가격은 최저 240달러 선이다. 1992년 에어조던 7이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30년이 흘러,

NBA의 아이콘인 마이클 조던의 6번째 시그니처 농구화를 구현했다. 이 신발은 벅스 버니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 어퍼와 화이트 컬러의 오버레이를 결합했다. 그리고 텅과 아웃솔에는 그린과 레드, 오렌지 컬러를 가미해 벅스 버니가 좋아하는 당근을 묘사했다. 남성용 8 특수 사이즈는 현재 스톡X에서 최저 24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5.5 사이즈는 450달러를 호가한다. 그리



▲ 에어조던 6 레트로 “헤어”의 측면부

고 남성용 8.5 사이즈는 플랫폼 폼 GOAT에서 최저가 255달러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조던 브랜드는 인종 평등과 사회적 정의, 교육 접근

성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억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이키, 에어맥스 90 “오렌지 카모” 색상으로 출시 예정

나이키의 에어맥스 90이 “오렌지 카모”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에어맥스 90 “오렌지 카모”는 눈길을 끄는 오렌지 컬러의 메쉬 어퍼와 측면의 블랙 컬러의 스우시, 힐 탭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어퍼에도 미드솔에 사용한 에어맥스 에어 쿠션이 덧대어 있다. 나이키는 에어맥스 90 “오렌지 카모” 이미지를 공개했지만, 정확한 출시일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풋웨어는 나이키 클래식 러닝화 출시 3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써 카모 데코레이

션 색상으로 세 번째 출시되는 것이다. 나이키는 지난 3월 에어맥스 데이(Air Max Day)를 맞아 “덕 카모”를 출시했고 지난 달 “그린 카모”를 출시한 바 있다. 한편, 나이키는 미국 내 흑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도나휴 나이키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주간 미국 전역에서 시스템적인 인종주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

나이키 에어맥스 90 “오렌지 카모”의 측면부



회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우리 모두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흑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느끼고 이번

비극으로 야기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이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Footwearnews.com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 AUTO PALLET FEEDING SYSTEM

작업자의 PALLET LOAD-UNLOAD 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FLAT TYPE EMBROIDERY MACHINE

고속 CPU를 적용하여 Multi-tasking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 AUTO BOBBIN CHANGER

자동 보빈 체인저 기능으로 밑실 소진에 의한 불량 발생 차단 가능. 소진된 보빈 자동 교체로 DOWN TIME 최소화



■ 2-NEEDLES PATTERN

한대의 기계에 2개의 바늘대 운용으로 UPPER 2개의 컬러 실 사용 가능. 인원 감소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IoT SYSTEM

신발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IoT SYSTEM 구축 (OEE, KPI 등)

Making _____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SunTech R&D CENTER 개발 능력

- 재봉기, 자수기 기구 설계, 구조 해석
- 재봉기, 자수기 캠 설계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컨트롤러 (CPU & OP 보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Program 개발
- 현장 맞춤형 IoT System 개발
- 브랜드 합작 신기종 개발



SUNTECH
밀양 공장 전경



SUNTECH GLOBAL NETWORK SYSTEM

🇰🇷 HQ & R&D CENTER & FACTORY

394-5, Sanoe-ro, Sanoe-myeon, Miryang-si, Gyeongsangnam-do
TEL +82-55-352-9304

🇨🇳 SUNTECH CHINA FACTORY

TEL +86-755-8429-5840
H.P +86-137-1450-7030

🇮🇩 CIKAR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 HANOI BRANCH

TEL +84-24-3991-9222
H.P +84-91-494-8802

🇮🇩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 HOCHIMINH BRANCH

TEL +84-28-6682-8877
H.P +84-97-932-8610